

아름다운 가게 ‘포천점 오픈’

6천만원 모금 차량 구입 실내인테리어 완비 높은 관심속 출발 나눔의 문화 확산 기대

아름다운 가게 포천점이 신음동 필마트 1층(구 예원프라자)에 공간을 마련하고 23일 오픈식을 가졌다.

아름다운 가게 75호점인 포천점은 포천리더스 클럽 회원들이 나눔과 순환의 원리를 지역사회에 보급해왔다는 취지에서 2여년간의 노력 끝에 오픈하게 됐다.

이날 오픈식은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한 텔런트 전인화씨, 고조홍 국회의원, 이강림 시의회 의장, 임희동 포천시법원장, 최길용 포천교육장 및 아름다운 가게 포천점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이날 아름다운 가게 포천점 양주승 대표와 김창균 명예집장, 양호신 운영위원장이 각각 텔런트 전인화씨로부터 위촉패를 받았다.

아름다운 가게는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산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로 박원순 변호사가 상임이사로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도모하여 우리 사회의 생태적, 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얻어지는 수익금은 나눔과 기부를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의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식의 성장과 풀뿌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아름다운 가게 포천점은 임희동 포천시 법원장의 각고의 노력의 결실이며 그 동안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2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개점을 꾸준히 준비해 왔다.

또한 김창균 필마트 대표가 점포를 무료로 제공했으며, 포천리더스클럽,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자원봉사센터 회원 등이 6천만 원을 모금해 실내 인테리어와 차량을 제공했다.

앞으로 아름다운 가게 포천점이 포천 시민들의 아름다운 힘으로 포천지역의 복지 향상과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름다운 가게 포천점 양주승 대표는 "아름다운 가게가 힘이 되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포천시민의 마음밭에 나눔과 순환의 씨앗을 심는 지킴이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면서 "아름다운 가게가 잘 운영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아름다운 가게 포천점이 신음동 필마트 1층(구 예원프라자)에 공간을 마련하고 23일 오픈식을 가졌다. 이날 오픈식은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한 텔런트 전인화씨, 고조홍 국회의원, 이강림 시의회 의장, 임희동 포천시법원장, 최길용 포천교육장 및 아름다운 가게 포천점 관계자, 시민 등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기쁨이 되고 소원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랑과 정이 많은 포천시민들이 기증과 자원봉사 활동으로 아름다운 시민이 될 것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대표는 "포천점은 전국 아름다운 가게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에서 개점했지만 입점을 추진하는 사람이 헌신적이었다"고 말하고 "지역의 리더들이 동참하고 있는 만큼 큰 기대

를 갖고 있고 잘 운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름다운 가게 포천점은 전화 031-535-7799, 홈페이지 www.beautifulstore.org로 확인할 수 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② 포천시 행정 문제점 많다

인사위원회 개최前 승진자 결정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편법동원

공무원 승진자를 결정하면서 당연히 사전에 해야 할 인사위원회 개최를 인사권자(시장) 결재 후 개최한 것을 비롯해 승진후보자 명부 미작성, 수의계약 부적절, 개발부담금 미부과 등으로 이어져 포천시 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20월23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제2청이 일부러 27일까지 경기도 제2청이 일부러 종합감사 결과 나타났다.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이다.

공직사회 인사행정은 예산과 더불어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양대 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특히 공무원 인사는 그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유능한 공무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은 기대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승진임용할 때는 반드시 승진대상직렬 선정(안)과 인사(안)를 수립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포천시는 4회에 12명(5급 3명, 6급 9명)을 승진시키면서 시장결재를 받은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시장의 승진자 결정 이전에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처도록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한 것은 인사권자의 인사독선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또 인사행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포천시의 경우 매년 2차례 공무원 개인별별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

승진자를 결정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나 공직사회의 기본인 근무성적평정을 감사 당시까지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인사행정이 인사권자의 독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고 않고 자격이 규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자격미달 업체에 수의계약 부여했다는 점이다. 2억3천187만6천원을 들여 시청 소의회실(40평)과 대강당(111평)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 체결을 했고, 실내건축공사 면허만으로도 자격 조건이 충분함에도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했다.

또 실적제하에 있어서 민간발주 실적을 포함해야 함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실적을 인정, 민간실적을 배제했다.

게다가 디자인공모 당선자와는 설계용역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포천시는 당선자에게 설계 및 시공권까지 몽땅 부여하는 것으로 공고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 공고 당시부터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과 민간 실적 불인정, 설계용역만 줘야 하는데 설계와 시공권까지 부여했다는 것은 누가봐도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주기위한 편법행정이란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공업단지를 조성하거나 형질변경 허가 등 토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 1천 2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들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부과료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14개 개발사업 납부의무자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불법건축물에 대해 당연히 부과해야 할 1억873만원을 조치하지 않았고, 유기동물처리 사업 부적정, 식품제조업소 부적합 제품 사후관리 부적정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수의계약 부적정이나 당연히 부과해야 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련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게다가 인사권의 부적절한 사용이 함께 더해졌다면 모든 책임론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설령 자치단체장의 지시에 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시·감독 책임이므로 결코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지방행정은 점차 그 권한과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치권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이 뒷받침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치권의 확대를 후속 독선과 아집, 그리고 권한남용으로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社 告

불우이웃돕기 창구

본지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직접 성금을 본지에 접수하거나 아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동이체를 신청하시기도 됩니다.

2006년01월31일부터 2007년02월27일까지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성금을 기탁하신 고마운 분들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것은 고마움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금을 불우이웃돕기 통장으로 계좌입금하신 분들은 아래 문의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품을 접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미리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으로 서로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성금 및 물품접수내역

- 백송가구 장옥희 돼지저금통 1개(48,520원)
- 포천신문주부명예기자단 사랑의 동전모이기 33만5천380원
- 이은미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10,000원
- 고은종합전기(주) 직원일동 60,000원
- 강옥자 늘봄꽃집 대표 20,000원(자동이체)
- 강수동 삼우석재 회장 200,000원(자동이체)
- 김종현 본지 조사위원회 고문 200,000원(자동이체)
- 신형숙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총무 20,000원(자동이체)
- 권경화 청정봉어찜 대표 30,000원(자동이체)
- 고남석 포천제일사우나 대표 400,000원(월 정기 이체)
- 송우리지역 노래연습장 모인 김한성 회장의 회원일동 100,000원
- 열린노래방 대표 김영철
- 원 노래방 대표 강수남
- 삼노래방 대표 홍미자
- 오아시스 노래방 대표 정동국
- 한미당 노래방 대표 이종구
- 뉴욕 노래방 대표 윤광희
- 팝콘 노래방 대표 김진희
- MS노래방 대표 김한성
- 퀸 노래방 대표 정수환
- 초콜릿 노래방 대표 이민철
- 2차노래방 대표 하춘자
- 유원가노래방 대표 서형석

▶ 성금 및 물품전달내역

- 조민복 삼성중학교 1학년 200,000원
- 오태현 영북면 대회산리 쌀 20kg 1포대
- 이은순 영북면 자일리 쌀 20kg 1포대
- 진현구 영북면 윤천리 쌀 20kg 1포대
- 고종길 영북면 자일리 쌀 20kg 1포대
- 남정희 영북면 산정리 쌀 20kg 1포대
- 원다미 이동초등학교 2학년 100,000원
- 최명미 이동초등학교 3학년 100,000원
- 전찬우 이동초등학교 6학년 100,000원
- 이우정 이동면 장암4리 100,000원
- 송대원 이동면 장암5리 100,000원
- 이다영 일동면 기산리 100,000원
- 송초현 가산면 마산리 쌀 20kg 1포대
- 유주원 소흘읍 고묘리 쌀 20kg 1포대
- 최해성 가산면 마산리 쌀 20kg 1포대
- 이훈희 가산면 마산리 쌀 20kg 1포대
- 조만기 가산면 마산리 쌀 20kg 1포대
- 박소희 가산면 마산리 쌀 20kg 1포대
- 전천후 가산면 마산리 쌀 20kg 1포대
- 주진영 가산초등학교 5학년 쌀 20kg 1포대
- 경민고등학교 재지수 200,000원

불우이웃돕기 문의 031-542-1507 계좌: 농협 585-01-015241 (주)한국정보 포천신문



이제부터~ 세탁 걱정 끝!

병원세탁물 전문



최한 대표

최첨단 기계도입 · 양질의 세탁문화를 열어가는 완주섬유

풍부한
노하우

저렴한
가격

위생적인
세탁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373 · ☎ 031) 534-3041 · Fax. 031)534-3042